

## 성반야바라밀다심경석(聖般若波羅蜜多心經釋)

성반야심경석: 아사리 智親友<sup>1)</sup> 저  
대본반야심경 한역<sup>2)</sup>: 玄奘 / 施護 역  
성반야심경석 국문: 박은정 역주

인도말로 ‘아라 뿌라나 빠라미타 히다야 바카’, 티벳말로 ‘괍바 쉼기 파윳투 친빠 닝뵤이 남뵤 쉼바’ 국문으로는 성반야바라밀다심경의 해설(聖般若心經釋)<sup>3)</sup>이다.

박가범모(薄伽梵母) 반야바라밀다에 귀의하나이다.

당역(唐譯): 《般若波羅蜜多心經반야바라밀다심경》  
송역(宋譯): 《聖佛母般若波羅蜜多心經성불모반야바라밀다심경》

여기에 ‘불모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경명(經名)<sup>4)</sup>을 말하는 것으로

《성불모반야바라밀다심경(聖佛母般若波羅蜜多心經)》이라 한다. 가장 먼저 이름을 붙이지 않으면 어떤 경인지 알 수 없는 까닭에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일체 경은 또한 이 반야바라밀다심경에 수렴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심경 가운데 심경이라고 이르는 것이니 그저 이름에 지나는 것이 아니다.

여기에 ‘박가범(薄伽梵, bhagavat)<sup>5)</sup>’ 가운데 ‘쑴(薄伽 bcom:부수다)’이라 함은 네 가지 마(四魔)<sup>6)</sup>를 부순 것이며 온마(蘊魔)를 비롯해 반야바라밀다의 이 뜻으로 마(魔)를 구하여 얻지 못하니 일체 마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에 부순 것이다. ‘댄(梵 ldan: 갖추다)’

- 1) 인도인이며 티벳어로 해설서를 집필하였다. 해설서에 인용하고 있는 대본반야심경 티벳어 원문과 현재 통용되는 티벳본 사이에 다소 상이한 부분이 보인다.
- 2) 당 현장의 번역과 송 시현의 번역을 해당 해설과 함께 소개한다. 현장의 번역을 ‘당역(唐譯)’이라 하고 시현의 번역을 ‘송역(宋譯)’이라 하였다. 두 번역 가운데 범어와 티벳어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시현의 번역이지만 현장의 번역이 익숙하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 비교·참고하기 위해 한역 원문을 옮겨 실었다. (중국어 통역 잡양린첸의 번역본에서 한역원문 발췌함)
- 3) 이 해설서는 대본 반야심경을 해설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독송본은 현장의 소본 반야심경이다.
- 4) 본래 범본과 티벳본에는 박가범 혹은 세존의 어머니라고 하였는데 시현의 경우, 박가범모(薄伽梵母)나 세존모(世尊母)라는 말 대신에 ‘불모(佛母)’라고 번역하여 경명의 본래 의미를 살리고 있다. 반면 현장은 이 부분을 생략하여 경명을 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 하였다.
- 5) 범어 ‘bhagavān’을 음역한 것이며 의역하여 ‘세존(世尊)’이라 한다. 티벳어로는 ‘쑴bcom 댄ldan 대`ds’ 세 글자로 번역된다. 앞의 두 자 쑴댄(bcom ldan)이 ‘bhagavān’에 해당되지만 마지막 ‘대`ds’는 부처님과 외도의 최고신과의 차별을 두고자 티벳의 역경사들이 덧붙인 단어이다.
- 6) 네 가지는 마는 온마(蘊魔), 번뇌마(煩惱魔), 사마(死魔), 천자마(天子魔)이다.

라고 함은 여섯 가지 뛰어난 덕<sup>7)</sup>을 가진 것이며 지혜의 일체 덕은 또한 반야바라밀의 가피에서 생기므로 갖춘 것(댄ldan: 갖추다)'이다. '대(ᄋs:넘어서다)'라는 것은 무주처열반(無住處涅槃)이니 반야바라밀의 뜻으로 일체의 심(心), 의(意), 식(識)(의 더러움)이 사라지고 일체의 습기(習氣)부터 벗어나므로 '대(넘어서다)'라고 하는 것이다. '어머니(母)'라고 하는 것은 삼세제불 역시 반야바라밀다를 행함으로써 성불하였으며 반야바라밀다가 낳은 것이니 반야바라밀은 제불의 어머니이므로 모(母)라고 하는 것이다. '반야'라고 하는 것은 듣고(聞) 사유(思)하고 닦음(修)의 세 가지 지혜로서 바르게 여실히 아는 까닭에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바라밀다(波羅密多)'라 함은 지혜로써 어떠한 법도 (실체를) 따라 볼 수 없는 까닭에 상(相)과 양변(兩邊), 생사(生死)를 뛰어넘는 것이요, 그런 고로 '바라밀(渡彼岸)'이라 하는 것이다.

'심요(心)'이라 한 것은 <십만송반야(十萬頌般若)> 를 비롯해 반야경 가운데 일체의 무상심심(無上甚深)<sup>8)</sup>이 이 작은 경안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심경'이라고 한다. '세존모 반야바라밀에 귀의한다'는 것은 <십만송반야경> 에서도 "반야바라밀에 귀의한다면 삼세제불에게 귀의하는 것과 같으니라."라고 하신 까닭에 복덕 자량을 쌓고 공양하기 위해서 귀의하는 것이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 이 반야바라밀에 대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일곱 가지 내용을 통해 명확히 설명한다. 이 일곱 가지는 무엇인가. 인연분(序文)과 입반야(入般若), 공성의 정의(性相), 반야바라밀다의 행경(般若波羅蜜多行境), 반야바라밀의 공덕, 반야바라밀다의 결과(般若波羅蜜多果), 반야바라밀다의 주문(般若波羅蜜多呪)이다.

「인연분(序文)」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如是我聞)”부터 “함께 계시었다(而共圍繞)”까지이다.

「입반야(入般若)」는 “오온 또한 자성이 공함을 보는 것이다(五蘊自性改空).”라는 부분까지이다.

「공성의 성상(性相)」은 “얻음도 없으며 얻지 못함도 없다(無所得, 亦無無得)”라는 부분까지이다.

「반야바라밀다의 행경」은 “얻음 없이 반야바라밀다에 머물러 행한다.

7) 자재(自在), 상호, 재물, 명성, 지혜, 정진

8) 공성을 이르는 말로 위없고 그 뜻이 지극히 깊고 미묘하여 '무상심심(無上甚深)'이라 한다.

(無得故...依般若波羅蜜多相應行故)”라는 부분까지이다.

「반야바라밀다의 공덕」은 “구경열반(究竟涅槃)”이라는 부분까지이다.

「반야바라밀다의 결과」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까지이다.

「반야바라밀다주」는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진언이다.

#### 송역: 如是我聞 여시아문

이제 인연분(序文)을 의미를 설명한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聖) 문수보살께서 대승의 일체 경을 들으시고 결집하셨으므로 “나는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 ‘이와 같이(如是)’라는 것은 반야심경의 모든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내가 들었다(我聞)’라고 하는 것은 세존의 바로 곁에서 들은 것이며 <길상송(吉祥頌)>의 말씀처럼 직접 귀(耳根)로 들은 것이다.

송역: 一時일시, 世尊在王舍城鷲峯山中세존재왕사성영취산중, 與大苾芻衆여대비구중  
千二百五十人俱천이백오십인구, 并諸菩薩摩訶薩衆병제보살마하살중, 而共圍繞이공위효

‘한때(一時)’에라는 것은 반야심경은 설한 때 이외의 때를 뜻하지 않으며 세존께서 왕사성에서 이 대중 권속들에게 오직 한번 설하신 때를 뜻한다.

‘세존(世尊)’으로 시작하는 부분은 여기에 설법자(說法者)는 누구이며, 장소는 어디이고, 대중 권속은 누구누구 인가, 모여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설법자는 불세존(佛世尊)이며 장소는 왕사성(王舍城)의 영축산(靈鷲山)이고 대중은 대비구승가와 보살마하살들이다. 모여서 무엇을 하였는가 하면 이 반야바라밀다심경을 설하였다.

여기에 ‘세존(薄伽梵)’이란 말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왕사성의 영축산’에서 ‘왕사성’은 빤비사라(頻婆娑羅) 왕의 덕이 크게 알려져 도성(都城)의 일반적 지명으로 붙여진 것이다.

‘영축산’이라 한 것은 그 나라가 매우 커서 (정확한 설법처를 밝히는 것이며) 영축산은 지형이 높고 새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붙인 이름이다.

‘대비구승가’라는 것은 뛰어난 능력과 다수(의 비구)를 말한다.

‘대보살승가’라는 것은 모두가 또한 반야바라밀다의 완전한 뜻을 실제 깨달으며 타인을 또한 반야바라밀다로 이끄는 다수의 보살이다.

‘함께 계시었다.’ 라는 것은 세존께서 많은 권속들에 둘러싸여 계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인연분(序文)이다.

송역: 爾時이시, 世尊即入甚深光明宣說正法三摩地세존즉입심심광명선설정법삼마지

이제 입반야(入般若)의 내용을 설명한다. “그 때, 세존은 심심명료(甚深明了)<sup>9)</sup>라고 이름하는 삼매에 들어가셨다.”라고 한 것은 세존께서 그러한 대중권속과 일체중생을 사랑하시어 가피를 내리시기 위해 선정에 드신 것이다.

여기에 ‘심심명료’라고 한 것은 이 경(經)으로 제법의 대상(境)과 일체 변(邊)을 벗어남을 설하고 아시는 까닭에 ‘심심명료’라고 하는 것이다.

‘삼매에 들어 계시다’는 것은 깊고 깊은 뜻(甚深) 그 차체에 입정하신 것이다.

당역: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 觀자재보살행심반야바라밀다시,  
照見五蘊皆空 조건오온개공

송역: 時時, 觀自在菩薩摩訶薩在佛會中觀자재보살마하살재불회중, 而此菩薩이차보살  
摩訶薩已能修行甚深般若波羅蜜多마하살이능수행심심반야바라밀다,  
觀見五蘊自性皆空관견오온자성개공

“그리고 그때, 성(聖)관자재보살마하살께서 깊은 반야바라밀을 행하시어 이를 낱낱이 관찰하시니 오온(五蘊)까지도 자성(自性)이 공함을 보시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그리고 그때’라고 한 것은 대중이 모여 있고 선정에 드신 때를 뜻한다.

“성(聖)관자재보살께서... 자성이 공함을 보시었다.”까지는 관자재보살께서 그 대중들과 일체중생을 어여뻐 여기시는 까닭에 반야바라밀의 깊은 뜻을 관하여 오온 역시 불가득(不可得)의 본성인 공성과 달리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생각하신 것이다.

‘오온(五蘊)’이라 하는 것은 (먼저) 색온(色蘊)은 거품과 같고 수온(受蘊)은 물방울과 같으며, 상온(想蘊)은 신기루와 같은 것이며, 행온(行蘊)은 파초와 같은 것이고,

9) 삼매의 이름을 여러 역본에서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다. 반야(般若)·이언(利言)의 공역은 ‘광대심심(廣大甚深)’으로 시호(施護)는 ‘심심광명선설정법삼마지(甚深光明宣說正法三摩地)’로 지혜륜(智慧輪)은 ‘광대심심조견(廣大甚深照見)’으로, 법성은 ‘심심명료삼마지법지이문(甚深明了三摩地法之異門)’으로 번역하고 있다.(大本『般若心經』梵文과 한역의 대조번역 김호성 역주 참고) 이는 범어 ‘avas(aṃbodham)’ 티벳어 ‘snang ba’가 동사로는 밝다, 떠오르다, 깨닫다, 명사로는 밝음(明), 등(燈), 현현(顯現) 등의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심심’은 공이나 진제의 의미이므로 상대적인 ‘현현’을 다양한 현상인 속제로 해석하여 ‘광대(廣大)’라고 일부 역본에서 의역하고 있다.

식은(識蘊)은 허깨비와 같은 것이다.

‘자성(自性)이 공하다’는 것은 그러한 오온은 본래로 자상(自相)이 공한 공성이니 일체 변을 벗어나 (실체의) 성상이 없는 까닭에 공성이다.

송역: 爾時이시, 尊者舍利子존자사리자, 承佛威神승불위신,

前白觀自在菩薩摩訶薩言전백관자재보살마하살언

“그러자 사리자 존자가 부처님의 위신력(威神力)으로 관자재보살마하살께 이와 같이 말하였다.”고 한 것은 대성문(大聲聞) 가운데 지혜제일인 사리자 존자가 여래의 가피력으로 성관자재보살께 여쭙는 것이다.

송역: 若善男子善女人약선남자선여인,

於此甚深般若波羅蜜多法門어차심심반야바라밀다법문,

樂欲修學者약욕수학자, 當云何學당운하학?

“어떤 선남자가 깊은 반야바라밀행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배워야 하나이까?”라고 하였다. 여기에 ‘어떤 선남자’라고 한 것은 대승의 가르침(敎說)에서 태어난 여래의 아들이다.

‘어떤’이라는 것은 대승에 머무는 누군가이다.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반야바라밀다 행으로써 제법의 진여인 불가설(不可說)의 깊고 깊은 뜻(甚深)을 행하는 것이다.

“행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배워야 하나이까?”라고 한 것은 반야바라밀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자가 어떻게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다.

송역: 時時, 觀自在菩薩摩訶薩告尊者舍利子言관자재보살마하살고존자사리자언

“그와 같이 말하였다.”와 “관자재보살마하살께서 사리자 존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라는 부분은 질문의 답을 말하신 것이다.

송역: 若善男子善女人약선남자선여인, 樂欲修學此甚深약욕수학차심심

般若波羅蜜多法門者반야바라밀다법문자, 當觀당관

“사리자여, 어떤 선남자나 선여인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이 살펴야 하느니라.”라고 한 것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이후에 설하는 대로 살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당역: 照見五蘊皆空 조건오온개공

송역: 觀五蘊自性皆空관 오온자성개공

‘오온까지도 자성이 공함을 바르게 보아야 한다’는 것은 오온은 자성이 공한 것이라 상(相)이 없으므로 과거시에 생하지 않았고 현재시에 머물지 않으며 미래시에 멸하지 않아 일체 삼체에 생·주·멸 하지 않는다. 그런 즉 무주처(無住處)의 성품은 불가설(不可說)이니 공성인 것이다.

‘보아야 한다’는 것은 바르게 여실히 보는 것이며 그와 달리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입반야이다.

당역: 色即是空 색즉시공

송역: 卽色是空 즉색시공

이제는 공성의 정의(性相)를 설한다. ‘색(色)은 공이다. 공성 또한 색(色)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에 ‘색(色)이다’라는 것은 공성의 본질을 깨닫지 못하므로 착란의 마음(妄念)이 색이라고 보고 분별하거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공하다’고 한 것은 색(色)의 본질이 공성이므로 지난 과거의 때에도 상(相)이 없는 까닭에 불가득(不可得)이며 현재와 미래의 때에도 자상이 없어 불가득(不可得)이니 일체 변과 일체 만물이 머물지 않는 까닭에 공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역: 空即是色 공즉시색

송역: 卽空是色 즉공시색

“공성 또한 색(色)이다.”라고 한 것은 공성조차도 불가득(不可得)의 본질이므로 색(色)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며 본래부터 머물지 않는 까닭에 공성 또한 색이라고 한 것이다.

당역: 色不異空 색불이공, 空不異色 공불이색

송역: 色無異於空색무이어공, 空無異於色 공무이어색

“색(色)과 공성이 다르지 않으며 공성 또한 색(色)과 다르지 않는 것이다.”라고 한 것은 색(色)의 본질은 불가설(不可說)의 공성이며 색(色)을 버리고 공성을 따로 구하여 얻지

못하므로 색(色)이 공성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불가설의 공성인 그것에 대해 색(色)이라고 말로 가립한 것은 본래부터 없으며 얻지 못하는 까닭에 공성 또한 색(色)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이다.

당·송역: 受想行識亦復如是 수상행식역부여시

“그와 마찬가지로 수(受), 상(想), 행(行), 식(識)이 공하다.”는 것은 색(色)에 대해 그와 같이 설명한 것과 같이 나머지 사온 역시 그와 같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당역: 舍利子사리자, 是諸法空相시제법공상

송역: 舍利子사리자, 此一切法如是空相차일체법여시공상

“사리자여, 그와 같이 제법 공성<sup>10)</sup>이니라.”라고 하였다. 여기에 ‘사리자여’라고 한 것은 일념으로 잘 들으라고 부르는 말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제법 공성이란 오온에 대하여 설명한 것처럼 다른 것 역시 육처(六處)에서부터 일체종지에 이르기까지 출세간의 제법 또한 공성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다.

‘성상(性相)이 없다(無性相)<sup>11)</sup>’고 한 것은 허공에 성상이 없듯이 (공성에는) 번뇌의 성상 또한 없으며 청정함의 성상 또한 없는 것이다.

당·송역: 不生不滅불생불멸 不垢不淨불구부정 不增不減부증불감

‘불생불멸(不生不滅)’라고 하였는데 현재의 발생(生)은 이전에 없던 것이 이후에 있게 된 것이다. ‘멸(滅)’은 이전에 있던 것이 이후에 없어지는 것이다. 공성은 불가득(不可得)이니 없으므로 이전에 생기지 않는 것(不生)이다. 생긴 적이 없으므로 이후에 멸하지 않는 것이다.

‘불구(不垢)’와 ‘부정(不淨)’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더러움(垢)’이란 식(識)들이 능취(能取)<sup>12)</sup>와 소취(所取)<sup>13)</sup>를 (진실이라 분별하여) 행하는 것이다.

공성은 식(識)을 뛰어넘기 때문에 불구(不垢)이다. 부정(不淨)이란 (공성에) 더러움이 없기 때문에 더러움을 벗어남(淨)도 없는 것(不淨)이다.

“줄어들어 없고 늘어남이 없다(不增不減)”라고 하였는데 여기에 ‘줄어들(減)’라는 것은

10) 티벳본에서는 공성(空性)으로 번역하고 있다.

11) 범본과 한역본에서 없고 티벳본에서만 보인다.

12)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로서 심식을 뜻한다.

13) 심식의 객체, 인식 대상을 뜻한다.

중생이다. ‘늘어남(增)’라는 것은 부처이다. ‘없다’고 한 것은 중생과 부처는 구하여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증감이 없는 것이다.

당·송역: 是故空中無色시고공중무색, 無受想行識무수상행식

“그런 까닭에 공성이란 색이 아니다.”라는 것에 있어 색(色)이란 무너지는(壞)

성상(性相)인데 공성에 성상이 없는 까닭에 공은 색이 아니다.

“수(受)가 아니다(非受)<sup>14</sup>.” 라고 한 것은 마찬가지로 수(受)는 느끼는 성상(인데 공성에  
저 성상이 없는 까닭에 수가 아니다)

“상(想)이 아니다(非想).”라고 한 것은 상(想)이란 분별(持)하는 성상(인데 공성에 저  
성상이 없는 까닭에 상이 아니다)

“행(行)이 아니다(非行).”라고 한 것은 행은 현행(現行)의 성상(인데 공성에 저 성상이  
없는 까닭에 행이 아니다),

“식(識)이 아니다(非識).” 식(識)이란 각각 개별 대상을 분별하는 성상인데 공성은 (저  
성상이) 없으므로 식들<sup>15</sup>이 아닌 것이다.

“들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오온들은 유루(有漏)의 성상인데 공성은 (저 성상이 없는  
까닭에) 오온들이 아니다.

당·송역: 無眼耳鼻舌身意무안이비설신의

“눈(眼)이 아니다(非眼).” 눈은 보는 성상인데 공성에 (이) 성상이 없으므로 공성은 눈이  
아니다.

귀(耳)가 아니다(非耳). 그와 마찬가지로 귀는 듣는 성상이다.

코(鼻)가 아니다(非鼻). 코는 냄새 맡는 성상,

혀(舌)가 아니다(非舌). 혀는 맛을 보는 성상,

몸(身)이 아니다(非身). 몸은 촉감을 느끼는 성상,

생각(意)이 아니다(非意). 생각은 개별적 대상을 분별하는 성상이며 공성은 (그와 같은)

성상이 없으므로 생각이 아니다. 그와 같이 육근(六根)은 (육경을) 장악하는 성상이며

공성은 (그와 같은) 성상이 없으므로 육근들이 아닌 것이다.

14) 티벳어 역본 대부분은 한역과 마찬가지로 ‘없다(無)’는 부정어로 번역하고 있지만 이 주석서의 저자  
는 ‘아니다(非)’로 번역된 역본에 근거하여 모두 ‘아니다(非)’라고 해설하고 있다. 이하 동일하다

15)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들을 뜻한다.



당·송역: 無色聲香味觸法무색성향미촉법

“색(色)이 아니다.(非色)” 색은 색깔과 모양의 성상이며 공성은 이 성상이 없으므로 색이 아닌 것이다.

“소리(聲)가 아니다.(非聲)” 그와 마찬가지로 소리는 듣기 좋거나 나쁜 성상,

“냄새(香)가 아니다.(非香)” 냄새는 맡는 것의 성상,

“맛(味)이 아니다.(非味)” 맛은 맛보는 것의 성상,

“촉(觸)이 아니다.(非觸)” 촉은 거칠고 부드러운 촉감의 성상,

“법(法)이 아니다(非法).” 법은 개별적 유형의 성상이며 공성은 (그와 같은) 성상이 없으므로 법이 아니다.

당역: 無眼界乃至無意識界무안계내지무의식계

송역: 無眼界무안계 無眼識界무안식계 乃至無意界내지무의계 無意識界무의식계

그러므로 경(境)들은 대상을 삼는 조건의 성상인데 공성은 상이 없으므로 경(境)이 아닌 것이다.

“안계(眼界)가 아닌 것이며 의계(意界)가 아니며 의식계(意識界)이르기 까지 또한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18계(十八界)는 존재의 성상이며 공성은 (이) 성상이 없으므로 18계가 아니다.

당·송역: 無無明무무명 無無明盡무무명진 乃至無老死내지무노사 亦無老死盡역무노사진

“무명(無明)이 아닌 것에서 노사(老死) 아니고 무명이 다함(無明盡)에서 노사의 다함(老死盡)까지가 아닌 것이다.” 무명에서 노사까지 12연기는 윤회를 유지(維持)하는 성상인데 공성은 (그와 같은) 성상이 아니므로 무명에서 노사에 이르기까지 아닌 것이다. 무명진에서 노사진까지는 청정한 성상인데 공성은 (그와 같은) 성상이 없으므로 무명진에서 노사진까지가 아닌 것이다.

당·송역: 無苦集滅道무고집멸도

“고(苦)와 집(集)과 멸(滅)과 도(道) 또한 없는 것이다.” 고는 괴롭게 하는 성상, 집은 (오온을) 취하게 하는 성상, 멸은 사라짐의 성상, 도는 앎(知)의 성상인데 공성에 (그와 같은) 성상이 없는 까닭에 공성은 사제(四諦)가 아닌 것이다.

당역: 無智亦無得무지역무득 以無所得故이무소득고  
송역: 無智무지, 無所得무소득, 亦無無得역무무득

“지혜가 아니다(非智).” 지혜는 제법을 실제로 아는 성상이며 공성에 (그와 같은) 성상이 없으므로 지혜가 아닌 것이다.

“얻음이 아니며 얻지 못함도 아닌 것이다.” (여기에서) 얻음이란 위없는 깨달음(無上正等覺)이다. 얻지 못함이란 중생이 무상정등각을 얻지 못함이다. ‘아니다’는 공성의 성상에 무상정등각이 또한 없으며 중생도 없기 때문에 얻음 또한 없는 것이요 얻지 않음 또한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설명을 통해 제법은 자성이 공한 성품이며 공성이란 “이와 같은 것이니라.”라고 설하신 까닭이다. 여기까지 공성의 성상이다.

당역: 菩提薩埵보리살타, 依般若波羅蜜多故의반야바라밀다고  
송역: 舍利子사리자, 由是無得故유시무득고, 菩薩摩訶薩보살마하살,  
依般若波羅蜜多相應行故의반야바라밀다상응행고

이제 반야바라밀다 행경(行境)의 의미를 설명한다. “사리자여, 그와 같이 보살은 얻은 바 없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하고 행하느니라.”라고 한 것은 (공을) 깨치지 않은 자에게 깨쳤다는 생각이 생기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의 이 행경을 가졌다면 공성을 행하고 있는 증거임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와 같이’라고 한 것은 제법이 공성인 까닭이다.

“보살들께서 얻은 바 없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한다”는 것은 대승에 머무는 보살들께서 오온에서부터 일체종지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얻음이 없음을 알고 어떤 법 또한 티끌조차 본 바 없이 반야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다. 제법은 공하여 머물지 않은 자성이나 그와 같이 알지 못하는 무명의 착각으로 어둡기 때문에 윤회의 바다를 떠돌며 윤회하는 것이다. ‘착각하는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라고 세 가지 지혜로써 살펴본다면 마음은 대상으로 삼을 바가 없으므로 번뇌를 또한 보지 못하며 청정함 또한 보지 못한다. 오온에서부터 일체종지에 이르기까지 또한 보지 못한다. 공성과 무상(無相)과 불생(不生)과 불멸(不滅) 등을 또한 보지 못한다. 지혜 또한 바르게 따라 보지 못하며 그 어떤 것도 보지 못한 그것이 마음의 성품을 본 것이다. 그와 같이 마음의 성품을 본 그것이 보리(菩提)를 본 것이다. 누군가 보리를 본 그것이 법성으로 부처를 본 것이다. 법성으로써 부처를 본 그 자는 무상정등각을 증득한 부처이다.

이러한 것을 의심하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와 같이 아무것도 없음을 오직 설명하는 것이  
외도들의 단견(斷見)과 성문의 적멸에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데 이에 대한 답을  
하자면 그와 같이 앎다. 불가득의 이치로써 중생을 이롭게 하며 무상정등각에 회향한다.  
육바라밀 등을 불가득의 이치로써 행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허물이 없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반야바라밀다의 행경이다.

당역: 心無罣礙심무가애, 無罣礙故무가애고, 無有恐怖무유공포,  
遠離顛倒夢想원리전도몽상, 究竟涅槃구경열반

송역: 心無所著亦無罣礙심무소저역무가애, 以無著無礙故이무저득애고,  
無有恐怖무유공포, 遠離一切顛倒妄想원리일체전도망상, 究竟圓寂구경원적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공덕을 설명한다. “마음에 두려움이 없으므로 장애가 없으며  
전도(몽상)에서 뛰어넘는 구경에 열반하느니라.” 라는 부분에서 반야바라밀 공성의 뜻을  
듣고(聞) 사유(思)하고 닦음(修)에 이르기까지 두려움 없어 심(心), 의(意), 식(識),  
일체의 종자를 사라지게 하므로 마음의 장애가 없다고 하는 것이다. 어린 아이 같은  
행동을 하는 자 외도와 성문과 연각의 행을 뛰어넘어 번뇌장(煩惱障)과 소지장(所知障)이  
다 소멸하여 대열반을 이루는 것이다. 여기까지 반야바라밀다의 공덕이다.

당역: 所有三世諸佛소유삼세제불, 依此般若波羅蜜多故의반야바라밀다고,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고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송역: 所有三世諸佛소유삼세제불, 依此般若波羅蜜多故의차반야바라밀다고,  
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득아녹다라삼막삼보리

이제 반야바라밀다의 과(果)의 의미를 설명한다. “삼세에 출현하시는 제불 또한  
반야바라밀에 머물러 아녹다라삼막삼보리(無上正等覺) 부처를 이루었느니라”라고 한 것은  
시방세계에 출현하시는 삼세의 모든 부처님께서도 깊고 깊은 이 반야바라밀다(심경)를  
읽고 암송하고 독경하고 닦아 타인에게 설하며 반야바라밀다를 행함으로써  
아녹다라삼막삼보리를 증득하여 성불한 것이다.  
‘삼세제불 또한’이라 한 것은 반야바라밀다가 (미래의) 부처를 낳을 것이며 (과거의  
부처도) 반야바라밀다에서 생겼으니 반야바라밀은 일체 부처님의 어머니이다.

여기까지 반야바라밀다과이다.

당역: 故知般若波羅蜜多 고지반야바라밀다, 是大神咒시대신주, 是大明咒시대명주,  
是無上咒시무상주, 是無等等咒시무등등주, 能除一切苦능제일체고,  
眞實不虛진실불허, 故說般若波羅蜜多咒고설반야바라밀다

송역: 是故應知: 般若波羅蜜多是廣大明, 是無上明, 是無等等明,  
而能息除一切苦惱, 是即眞實無虛妄法, 諸修學者,  
當如是學。我今宣說般若波羅蜜多大明曰

이제 반야바라밀다주의 의미를 설명한다. “그런 고로 반야바라밀의 진언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느니라.”라고 하였다. 여기에 ‘그런 고로’라고 한 것은 앞서 말씀하셨으므로 ‘그런 고로’라고 한 것이다.

“반야바라밀다의 주문은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고 한 것은 반야바라밀다의 뜻을 밝히는 행을 진언(呪)라고 하고 세간의 제법초차 무상정등각의 대승이 되며 자타 모두 무상정등각으로 부처가 되기 때문에 진실하여 거짓이 없다고 한 것이다.

‘대명주(大明呪)’라고 하는 것은 반야바라밀의 뜻을 밝히는 주문(明呪)이며 탐진치(貪瞋癡)와 윤회의 일체이 고통 불가설(不可說)의 무자성(無自性)임을 설하는 까닭에 반야바라밀다는 대명주이다.

‘무상주(無上呪)’라는 것은 반야바라밀은 위없는 깨달음(무상정등각)을 이루게 하는 것이므로 무상주이다.

‘무등등주(無等等呪)’는 반야바라밀은 세간과 성문과 연각의 행에 비할 데 없으며(無等) 제불의 지혜와 동등(等)한 까닭에 무등등주(無等等呪)의 진언이다.

“일체 고통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주문임을 알아야 하느니라.”라는 부분은 반야바라밀을 읽고 외우고 여법이 작의하고 다른 이에게 설하는 것으로 눈병 따위의 일체 병이 없어지며 시방제불과 천룡 등이 보호하고 반야바라밀 행으로 악도와 윤회의 모든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므로 일체고통을 없애는 주문이다. 반야바라밀의 주문을 말한다.

당역: 揭諦·揭諦·波羅揭諦·波羅僧揭諦·菩提薩婆訶  
아제 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하

송역: 怛寧也他·唵·誡帝·誡帝·播囉誡帝·播囉僧誡帝·冒提莎賀  
달녕야타 암 아제 아제 파라승 아제 모제사하

“따야타 가떼 가떼 빠라가떼 빠라쌈가떼 보디 쏘하”라고 하였다. 반야바라밀의 이 주문은 최상의 일체 심심미묘(甚深微妙)의 핵심이 본연으로 수렴되어 있으므로 가피가 깃든 주문이라 말씀하신 것이다.

송역: 舍利子! 諸菩薩摩訶薩 사리자재보살마하살,  
若能誦是般若波羅蜜多明句 약증통시반야바라밀다명구,  
是即修學甚深般若波羅蜜多시즉수학심심반야바라밀다

“사리자여, 보살마하살은 그와 같이 깊은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느니라.”라고 하신 것은 삼세제불 또한 반야바라밀을 행함으로써 성불하기 때문에 대승에 머무는 보살들도 반야바라밀을 배워야 하는 것이다.

송역: 爾時이시, 世尊從三摩地安詳而起 세존종삼마지안상이기,  
讚觀自在菩薩摩訶薩言 찬관자재보살마하살언 : 善哉, 善哉! 선재선재

“그 때, 세존께서 삼매에서 일어나시어”라는 한 것은 세존께서 심심삼매에 드신 위신력으로 인해 사리자가 묻고 관자재보살께서 답하시게 되었으며 그 내용이 끝나자 삼매에서 일어나신 것이다.

“관자재보살마하살께 착하다고 찬탄하시며 착하도다, 착하도다”라는 한 것은 반야바라밀의 핵심을 설하신 것이 제불의 말씀과 일치하고 어긋남이 없는 까닭에 ‘착하도다’라고 찬탄하신 것이다.

송역: 善男子 선남자! 如汝所說 여여소설, 如是여시, 如是여시!  
般若波羅蜜多當如是學 반야바라밀다당여시학,  
是即真實最上究竟시즉진실최상구경, 一切如來亦皆隨喜 일체여래역개수희

“선남자여, 그와 같으니라. 선남자여, 그와 같아서 그대가 설한 대로 반야바라밀다를 행해야 하느니라. 그러자 여래들께서도 따라 기뻐하셨다.”라고 한 것은 관자재보살께서 말씀하신 것이 제불께서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므로 그와 같다고 하신 것이며 성관세음보살께서 반야바라밀을 설하신 대로 대승에 머무르는 보살들도 행해야 하는 것이다.

“여래께서도 따라 기뻐하셨다.”라는 것은 관세음보살께서 설하신 것에 대해 여래께서 수희찬탄을 하신다면 다른 이들이 의심하지 않은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승역: 佛說此經已불설차경이, 觀自在菩薩摩訶薩并諸苾芻관자재보살마가살병제필추,  
乃至世間天내지세간천、人인、阿修羅아수라、乾闥婆等一切大衆건달바등일체대중,  
聞佛所說문불소설, 皆大歡喜개대환희, 信受奉行신수봉행

“세존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시자”라고 한 것은 반야바라밀을 이 법문으로 모든 권속들이 또한 반야바라밀의 뜻을 깨닫고 대승에 장애가 없는 까닭에 기뻐하시고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사리자존자와 관자재보살과 천(天), 인(人), 아수라(阿修羅), 건달바(乾達婆) 등 일체 권속들이 세존께서 하신 말씀에 크게 기뻐하였다.”

불모반야바라밀다심경의 주석 아사리(阿闍梨) 가나 미띠(智親友)가 지은 것이 모두 끝나다.

2018년 10월 28일 사단법인 나란다불교학술원 지도위원 데퐁로썰링사원 계쎌 툽덴소남 스님이 감수하고 박은정(Tenzin Dronme)이 완역하였다. (법회일정을 앞두고 갑자기 번역을 하게 되어 시간상 각주의 자세한 출처를 밝히고 표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출처가 궁금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